

“어디가 명석 같아줄랑께 한번 말해 보씨요~”

# 강진군, ‘직장맘 명석 토론회’ 개최



강진군이 직장맘을 위해 명석을 깔았다. 강진군은 인구감소 대응에 정책 수혜자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직장맘 명석 토론회’를 열어, 저출산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 내 직장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직장맘 명석 토론회는 직장생활을 하며 육아와 가사일까지 도맡아 하는 직장맘들에게 명석을 깔아줄 테니 그동안 힘들었던 점을 토크하고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도록 군이 직접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직장맘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은 관련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

해 2018년 강진군 인구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직장맘 분야 토론회는 지난 해 12월에 열린 여성분야 100인 군민 토론회와 올해 1월 ‘다둥이 가정과 함께하는 토론회’ 이어 강진군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 번째 군민 릴레이 토론회다.

이 날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겠지만 야간 육아나눔터 설치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 직장맘이 행복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혜자 생생한 의견 반영 여성 및 다자녀 가정 분야 이은 세번째 릴레이

안병욱 강진 부군수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오늘이 토론회가 직장맘들이 행복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가 정착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열띤 참여와 집의 응답으로 이뤄진 이날의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강진군은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한 가정 친화정책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현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신청, 전국 지자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 설립을 비롯해 문화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농

촌민박 푸소체험(FU-SO), 명품산촌 유희센터 운영, 고향에서 다시 찾는 두드림 미래, 착한 귀농 프로그램을 펼쳐 정부 핵심정책에 대응하고 군역시 지방소멸에 대비한 인구 감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 강진배 야채골프코트 조성, 2019 관광도시 선정, 지역자원 기반 관광활성화 등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농업소득 창출과 ‘2018 A로의 초대’ 추진을 통해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함으로써 지역경제 극복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 사회 각층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청년, 귀농·귀촌인 분야에 걸쳐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4년 후 다양한 인구대응 정책의 완성을 통해 인구 4만명성 회복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안군, 2018 농업인대학 내달 3일까지 교육생 모집

무안군은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18 무안군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안군농업인대학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매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귀농인반(50명)과 마케팅반(30명) 두 개의 과정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주 1회씩 운영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마케팅반은 소규모 활용, 홍보영상 만들기, 스토어팜 관리 등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남양북향주민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인력담당을 방문해 수강신청과 교과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할 수 있다.

무안=이성 기자

## “설 연휴에 맘섬일출 보러가요” 해남 땡끝마을 맘섬일출 14일부터 4일간 펼쳐져



해남 땡끝 마을 관광의 백미로 꼽히는 맘섬 일출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땡끝 선착장 앞에 자리한 두 개의 섬인 맘섬 사이로 해가 뜨는 맘섬 일출의 장관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섬 사이 한가운데로 해가 뜨는 16일 일출이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출 시간은 7시 20분경이다.

맘섬 일출은 매년 2월과 10월 일 년에 두 차례 연출되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으로 인해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2월 일출은 습도가 낮고 날씨가 맑아 더욱 선명한 일출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올해는 설 연휴 기간과 겹쳐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관광객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맘섬 일출은 일년에 두 번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담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며, “설 연휴 기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맘섬 일출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 곡성군, ‘블루베리’ 조기재배면적 확대정책 추진해...농가소득 2배↑

블루베리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

곡성군은 전국에서 시설재배 비중이 높은 곳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생과를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6월 이전 조기출하면적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블루베리 조기출하 시 노지재배에 비해 2배 이상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어 올해 사업비 3억6천만 원을 책정하여 다경보온커튼, 난방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재배면적을 6.2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인의 조기재배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7일, 곡성군 블루베리 농업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조기재배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블루베리 조기재배 기술 및 블루베리 신종 정보 수

집을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산들블루베리농장(대표 장성규)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기재배 가운시설 관리, 신종 특성 소개, 블루베리 수확 후 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곡성군 블루베리 농업인 연구회 박광순 회장은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설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종 재배특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곡성 블루베리 조기출하 생산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봄철 산불출동, 골든타임 35분 준수해야”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방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조병철 본부장이 지난 9일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승무원들은 산불출동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제천 및 밀양화재 사건으로 골든타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2월 4일에 집중되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중·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화행기 출동부터 현장



에 도착 불 투하까지 35분 ‘골든타임’ 준수 등 출동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우리 숲 지키기로서 끝까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